

## 포로와 이단자: 아르헨티나 문학에 나타난 '여자 포로'의 모습

송병선(한국의국대학교)

글의 순서	
I.	들어가는 말
II.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모하칸 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III.	라틴아메리카의 포로문학 전통
IV.	아르헨티나 백인과 원주민의 관계: 에체베리아의 「여자포로」
V.	「여자포로」와 '슬픔에 빠진 어머니'
VI.	「마르틴 피에로」와 '슬픔에 잠긴 성모'의 효과
VII.	여자포로와 도르헤스
VIII.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19세기 아르헨티나 문학에는 원주민에게 사로잡힌 여자포로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현상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동안 라틴아메리카 문학 연구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특히 19세기 아르헨티나 문학에 나타난 백인 여자 포로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백인 여자포로의 모습은 디아스 데 구스만Díaz de Guzmán의 책 「손으로 쓴 아르헨티나La Argentina manuscrita」(1612)에 나타난 루시아 데 미란다Lucía de Miranda의 일화부터 보

르헤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끊임없이 사용되어 온 주제이지만, 이런 여자포로의 전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우선 아르헨티나의 포로 전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의 포로 전통을 비교하면서 아르헨티나 전통의 본질과 기원을 알아보고, 에스테반 에체베리아 Esteban Echeverría의 『여자포로 *La cautiva*』와 호세 에르난데스 José Hernández의 『마르틴 피에로 *Martín Fierro*』와 같은 19세기 작품 속에서 여자포로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포로의 개념이 아르헨티나의 사회와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문학은 유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19세기의 라틴아메리카 문학작품들이 유럽작품의 모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럽과 신대륙 문학의 이런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영토확장 전쟁에서 일어난 ‘포로’의 문제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식민 기간에 쓰여진 포로 소설들은 대부분 지옥과 같은 포로생활, 고통과 유혹, 그리고 석방과 구원의 구조에 의거한다. 또한 신앙적 메시지와 혼합되면서, 그 작품들의 내용은 강한 호소력을 갖게 된다. 이런 포로 소설의 주축을 이루는 요소는 폭력이다. 가령 몽둥이를 맞아 산산조각이 난 머리들, 피로 흠뻑 적셔진 땅 위에서 꿈틀거리는 팔다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버린 얼굴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폭력은 대부분 문명의 세계와 동떨어진 원주민 세계 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곳은 인류이나 풍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런 폭력과 관련되어, 원주민에게 사로잡힌 백인 여자 포로의 운명은 더욱 그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여자포로들이 모든 포로들이 처하는 육체적 위험과 직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세 개의 위험과 마

주치기 때문이다. 첫째는 남성화이다. 여자포로들은 힘든 고통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 여성다움을 떨쳐버리고 남자들만이 지닌다고 생각되던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 둘째는 백인 여자는 그녀를 사로잡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와 강제로 결혼을 한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양인들에게 강간은 일반적 행위였지만, 원주민 부족들은 여자포로를 욕되게 하는 전통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포로 소설의 독자들은 이런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독자들의 정서에 부응하기 위해 성폭력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셋째는 백인여자포로들은 그들의 “백인성”을 버리고 원주민화되기도 했다. 실제로 문명의 세계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거나, 원주민 동료들과 함께 남아있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한 수많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백인 여자포로와 원주민 남자의 성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들이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원주민 남자가 성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라면서 독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 II.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모히칸 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우선 포로문학이 어떠한 일반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포로문학인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모히칸 족의 최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히칸 족에 의해 자라난 호크아이는 어렸을 때 살해당한 식민지 영국인의 아들로, 쇠망해 가는 모히칸족의 추장 칭가치국과 그의 아들 웅카스에 의해 자라난다. 그러면서 호크아이는 원주민들의 미덕과 기술을 배우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호크아이는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된다. 땅과 부족을 잃은 칭가치국은 웅카스와 호크아이

를 데리고 허드슨 계곡에서 덧사냥을 한 후에 칸-투-키(후일의 켄터키)로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웅카스의 아내감을 찾는다. 그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는 코라 먼로와 엘리스 먼로는 던칸 헤이워드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와 동행하면서 마구아라는 의심스러운 안내인을 따라 숲 속으로 들어간다. 프랑스편인 마구아는 그들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먼로 자매는 호크아이, 웅카스, 칭가치국에게 구조된다. 그들의 목적지인 윌리엄 헨리 요새로 가는 힘든 과정에서, 그 후 며칠 간 벌어지는 감동적이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펼쳐진다.

미국 포로 소설의 대표작인 『모히칸 족의 최후』에는 두 명의 여자인 코라 먼로(Cora Munro)와 엘리스 먼로(Alice Munro)가 원주민 세계에서 겪은 모험이 서술된다. 두 여자는 육체적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에워싼 위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두 여자에게 느끼는 무의식적인 매력으로 인해 숲 속의 평화가 깨지고, 백인 남성들이 원주민 남자와 대치하고, 결국은 모히칸 족의 마지막 후손인 웅카스가 숨을 거두게 된다. 이렇듯 이 작품은 원주민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서양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두 세계의 화합을 꾀한다.

### III. 라틴아메리카의 포로문학 전통

미국의 전통과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 포로를 다루는 문학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첫 작품은 아마도 알바르 누네스 카베사 데 바카 Alvar Núñez Cabeza de Vaca 일 것이다. 그는 1528년부터 1536년간 플로리다에서 멕시코를 탐험하면서 포로생활을 기록한다. 이후 포로를 다룬 문학작품으로는 프란시스코 누네스 데 피네다 이 바스쿠난 Francisco Núñez de Pineda y Bascuñán의 『행복한 포로생활 *Cautiverio feliz*』(1863)이 유일하게 언급될 뿐이다.

그런데 원주민에게 붙잡힌 여자들의 운명에 관한 오랫동안의 침묵

에서 예외가 되는 작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루시아 데 미란다의 이야기이다. 1612년의 아르헨티나 역사를 쓰면서 디아스 데 구스만 Ruy Díaz de Guzmán은 루시아 데 미란다의 이야기를 언급한다. (Díaz de Guzmán 79-85) 그녀는 세바스티안 우르타도 Sebastián Hurtado와 결혼을 했고 그녀의 남편과 함께 1526년 라플라타 강으로 원정을 떠난 세바스티안 카봇 Sebastián Cabot의 탐험대를 따라간다. 1529년 카봇이 없는 사이에, 성령(Sancti Spiritus)요새가 팀부 원주민에 의해 파괴된다. 디아스 데 구스만은 이 공격의 주된 이유는 루시아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장인 망고레 Mangoré와 그의 못된 형제인 시리포 Siripo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망고레는 요새를 지키던 군인들과 싸우던 중에 목숨을 잃었고, 그러자 시리포는 루시아에게 청혼한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청혼을 수락한다. 그러나 이 두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되찾을 수 없었다. 시리포는 루시아가 전남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루시아를 화형에 처했고, 세바스티안 우르타도는 풍뎉기 떼의 화살에 맞아 운명했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후에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확장되고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극작가와 소설가들에 의해 사용된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무어 Thomas Moore는 1718년에 『망고라, 팀부족의 추장 혹은 신앙심 깊은 부부 Mangora, King of the Timbusians, or The Faithful Couple』을 발표한다. 그리고 스페인의 신부인 마누엘 라사야 Manuel Lassalla는 1784년에 선을 보인 『루시아 미란다 Lucia Miranda』라는 극작품을 쓴다. 그로부터 5년 후에는 라바르덴 Manuel José de Lavardén이 3막 비극 『시리포 Siripo』를 발표한다. 이 이야기는 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19세기 후반에는 한편의 희곡과 두 편의 소설이 쓰여진다. 그리고 20세기에도 이것은 계속된다.

루시아 데 미란다의 이야기는 원주민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시각이 미국의 행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시아 데 미란다의 이야기를 미국 신화인 존 스미스와 포카혼타스(John Smith and Pocahontas)의 만남을 비교해보

면 이런 차이는 금방 드러난다. 이런 원한과 복수로 점철된 이런 차이는 19세기에 더욱 심해진다. 여자포로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작가들의 의도는 포로소설을 쓴 미국 작가들의 목표와 비슷하다. 즉, 영토 확장과 원주민 파괴를 위해 국민적 동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문학에서 여자 포로의 이미지는 미국의 포로소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 IV. 아르헨티나 백인과 원주민의 관계: 에체베리아의 『여자포로』

아르헨티나 원주민은 5월 혁명의 꿈이 시들어가면서 희생양이 된다. 환 마누엘 데 로사스 Juan Manuel de Rosas는 원주민에 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라우카나 족의 언어에 관한 사전도 쓴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아르헨티나의 미래는 “모든 원주민을 없애버리는 원정”(Cordero 164-165)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사스는 1833년의 피비린내 나는 원정에서 수많은 원주민을 학살했고, 그 결과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다.

- 
- 1) 존 스미스 선장은 선원들과 랫클리프 총독을 이끌고 신대륙을 향한다. 존 스미스는 미남이며 용맹하고 정의로우며 인물이지만 랫클리프 총독은 외관이 불품 없는 데다 황금에 눈먼 속물이다. 선원들과 랫클리프 총독은 신대륙에 도착하자 황금을 찾는데 혈안이 되지만, 욕심 없는 존 스미스는 유유자적하게 자연의 풍광을 즐긴다. 존 스미스도 신대륙에서 빛나는 보물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니라 신비한 인디언 여인 포카혼타스이다.

둘은 곧 사랑에 빠져 버드나무 아래서 키스를 나누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애정 표현의 현상이 큰 화근이었다. 주인공들의 로맨스 장면을 두 사람이 목격하는데, 하나는 포카혼타스를 연모하는 인디언 청년 코쿠웅이고 다른 하나는 백인 일행이다. 분개한 코쿠웅이 존 스미스를 달려들자 백인은 화들짝 놀라 방아쇠를 당긴다. 백인의 총탄에 부족의 전사를 잃자 포와탄 추장은 백인과의 전쟁을 결심한다. 그리고 존 스미스는 처형될 운명이었다. 이 위기일발의 상황을 포카혼타스가 뒤집어 놓는다.

그녀는 아버지 포와탄에게 평화와 자애의 정신을 눈물로 호소한다. 포카혼타스의 읍소에 포와탄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순간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친다. 우유부단한 포와탄의 모습에 분노한 다른 부족의 추장이 배신자 포와탄을 해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존 스미스가 뛰어들어 포와탄의 생명을 구한다. 그리하여 평화가 승리한 것이다. 인디언과 백인들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벗어나 화해를 일구어냈고 존 스미스는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존 스미스가 포카혼타스에게 동행을 제의하지만 포카혼타스는 고향에 남겠노라고 말한다.

'문명의 칼'의 승리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위대한 백인 군인들의 승리이다. 게다가 '사막의 정복La conquista del desierto'이 진행되는 동안 탄생된 원주민에 대한 증오심은 20세기에도 계속된다. 레오폴도 루고네스Leopoldo Lugones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원주민 파괴를 정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찬양했다. "만일 원주민 학살이 백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인류가 그것의 승리로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행위이다." 반면에 미국 역사가들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19세기 원주민 정책을 한탄하고, 심지어는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도 원주민의 멸종을 국가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증오가 이토록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을까? 이것은 원주민과 그들의 백인 여자포로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에서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국가의 문학작품이며 낭만주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에스테반 에체베리아의 『여자포로』에서 잘 드러난다.

에체베리아가 이 시를 마르코스 사스트레 문학살롱에서 낭송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작품은 로사스가 원주민 원정에서 승리한 후 4년 뒤인 1837년에 발표된다. 에체베리아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체류했으며, 주제와 문체에 관해 낭만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여자포로』는 낭만주의적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고상한 야만'이 아닌 '악마의 화신'이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생각이 없고, 그들의 포로를 마구 다루는 술 취한 짐승과도 같다. 그리고 마치 "목마른 뱀파이어처럼" 말의 목을 자르고 "그 피를 마시고 빨며 음미한다"(137)고 적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원주민은 자신의 주변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선사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인물로 그려져 있다.

## V. 『여자포로』와 ‘슬픔에 빠진 어머니’

이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원주민의 잔인한 습격을 받은 후, 위대한 백인 전사인 브리안은 부상을 입고 체포된다. 많은 여자들도 포로가 되는데, 그 중에는 아름다운 그의 아내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원주민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자, 그를 죽여버리고, 브리안과 함께 도망친다. 그들은 끝도 없이 광활한 사막을 방황하면서, 여러 위협에 처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브리안의 전쟁 때 입은 상처로 죽게 된다. 마리아는 마침내 브리안의 몇몇 병사들에게 구조된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원주민 습격 당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주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 작품은 원주민을 이상화하기보다는 그들을 폄하한다. 그는 낭만주의적 전통을 따라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사회를 그리지만, 사실 그것은 낭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는 1830년대 백인계 아르헨티나인의 특정한 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브리안이라는 이름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이런과 스코트에 대한 찬양이다. 그러나 그는 작품의 중심인물이 아니다. 『라스트 모히칸』의 엘리스처럼, 그는 힘없고 연약하며 무능력한 존재이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체포된 이후 마리아의 순결과 그녀의 용기를 의심하면서 마리아를 거부한다. “마리아, 난 불쌍한 놈이야/ 당신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야만인의 어리석음이/ 명예로운 당신의 순결을 짓밟았고/ 성스러운 당신 육체를 더럽혔을 것이니/ 나의 애정과 당신의 사랑을 위해/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소”(607)

그러나 마리아의 성격은 매우 틀리다. 동시대의 미국 작가와는 달리, 에체베리아는 그녀가 자기를 겁탈하려는 원주민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사실을 통해 그녀의 ‘남성다운 힘’을 강조한다. 그녀는 연약하거나 무기력한 낭만적인 여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의 여결처럼 용기와 힘으로 자신과 브리안을 지킨다. 이런 점은 바이런의 시에서 인용한 에체베리아는 헌사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곳에서 여자의 마음은/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는 비옥한 땅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



자들은 착한 사마리아의 여자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줄지 안다  
“(121)

작품이 진행되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정조를 위협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가혹한 운명과 마주치는 미국 여인의 전형과는 다르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이다. 그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성모'를 상징한다. 브리안에게 원주민들의 공습과 그 여파에 관해 말할 때, 그녀는 “(원주민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내어/ 죽이려고 하던/ 연약한 아이들”(152)에 관해 말한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떠난다.

마리아와 브리안과의 관계는 아내와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마리아가 브리안을 발견하고 그를 다정하게 보살피는 모습은 피에타(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릎에 안고 슬퍼하는 그림)를 연상케 한다. “상처 입은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몸은 단단한 밧줄에 매여 있으며, 팔은 십자처럼 벌리고 있었다”(153) 따라서 브리안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그를 보살피려는 마리아의 노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고통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가 슬픔에 잠긴 성모(mater dolorosa)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여자포로』에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백인과 원주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문화적 복합체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백인은 유럽의 피를 받은 아르헨티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원주민들은 단순히 '야만인'이 아니라 '이교도'인 것이다.

원주민을 '이교도'로 보는 시각은 스페인 가톨릭이 무어인과 유대인을 적으로 상징한 것과 같다. 또한 그것은 슬픔에 빠진 성모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이런 원주민=무어인/유대인이라는 등식은 주로 '슬픔에 잠긴 성모'의 이미지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 즉 여자포로는 아이들로 인해 받는 고통을 통해 고귀한 성모와 동일시된다. 이것을 보여주듯이 에체베리아의 작품에서 여자포로의 고통은 어머

니의 역할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슬픔에 잠긴 성모’라는 은유는 브리안이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정조를 잃은 여인의 경멸스런 이미지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강간이나 강요된 결혼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성애나 아이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아이 죽이기’ 주제는 사실상 역사적 사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Haberly 12)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포로들의 아이를 키우고 포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원주민화 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 속에서 포로가 된 어머니의 아이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기독교 사회 내에서 반유대적 전통을 강화시킴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원주민들에 대해 반감을 갖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인다.

## VI. 『마르틴 피에로』와 ‘슬픔에 잠긴 성모’의 효과

그러나 여자포로를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린 에체베리아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호세 에르난데스의 『마르틴 피에로』이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순진하고 학대당한 가우초 마르틴 피에로는 자기가 겪은 역경의 세월을 이야기한다. 그는 허름한 집에 살다가 강제로 징병 당해 ‘국경’, 즉 기독교인의 땅과 원주민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과의 경계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잔인할 정도의 엄한 규율과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체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야만족들의 공격에 맞선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던 아내와 아이들도 흔적이 없었다.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힌 피에로는 불량배 가우초가 되어 두 사람을 죽인 후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게 된다. 그런데 그는 군대에 의해 포위를 받게 되고 검거될 찰나, 그의 용기에 감탄한 크루스 상사가 뜻하지 않게 그의 편이 되어준다. 그는 크루스 상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온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동료도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피에로는 두 사람이 원주민의 땅으로 들어가 은신처를 찾자고 주장한다. 국경의 십자가와 함께 전반부는 끝난다.

후반부인 『귀환』은 2년이란 긴 세월동안 원주민의 움집 생활이 고생스러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크루스는 원주민 마을을 강타한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피에로는 기독교 백인 포로를 지켜주려다가 원주민을 살해하고 그녀와 함께 문명의 땅으로 도망친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아이들과 크루스의 아들인 피카르디아를 만난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불행과 역경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한편 피에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무대에 등장하는 '모레노'와 함께 시합을 한다. 피에로의 승리로 끝나자, 그의 아들과 피카르디아는 서로 헤어지기로 한다. 그리고 피에로가 인생의 교훈을 역설한 다음 그렇게 한다.

『떠남<sup>2)</sup> *Ida*』(1872)에서 에르난데스는 원주민들을 비교적 친절한 모습으로 그린다. 그러나 『귀환 *Vuelta*』(1879)이 등장할 무렵 “사막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 작품은 원주민 학살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데 사용된다. 에르난데스는 원주민들을 “기독교인을 죽을 정도로 혐오하고/병영도 없이 전쟁을 한다..... 이런 이교도들의 가슴에는/ 동정심이 고동치지 않는다”(216)

기독교인-이교도의 이런 대립관계는 작품이 진행되면서 더욱 강조된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에게 십자가에게 침을 뱉는 것은/ 장난감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나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한다..... 원주민과 돼지와 고양이는/ 아이의 피를 마신다”(222) 이렇게 에르난데스는 유럽의 반유대적 전통의 관점에서 원주민을 정의한다. 즉, 원주민들은 가톨릭의 가장 거룩한 상징을 욕되게 하는 존재들이며, 그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긴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죽이는 사람들로 인식한다. 이런 생각은 더욱 강조된다. “항상 배에 관해 말하던/ 미국인 포로가 있었다/ 원주민들은 그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이유로/ 웅덩이에 빠뜨렸

2) 『마르틴 피에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872년에 출판된 1부를 흔히 『떠남』이라고 부르고, 1879년에 발표된 2부를 『귀환』이라고 부른다.

다. 이렇게 죽이기 위해/ 그들은 늙은 계집을 주었다/ 그는 슬퍼하며 탄식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가련한 미국인의 눈은/ 어린양의 눈과 같았다”(226)

이 일화 속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천상의 눈”을 지닌 어린 미국 소년은 계속해서 “배”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바다를 향해하면서 젊은 나날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배”의 의미(“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함)도 보여준다. 또한 그가 죽을 때 어린양의 눈과 같았다는 말 역시 가톨릭과 관계가 있다.

어린 미국소년이 죽은 후, 크루스는 자기 아들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이교도들 사이”(228)에서 숨을 거둔다. 그러자 마르틴 피에로는 친구의 죽음에 망연자실한다. “내 눈은 햇빛을 보지 못했고/ 이내 나는 실신하고 말았다/ 크루스의 죽은 모습을 보자/ 나는 번갯불에 맞은 사람처럼 쓰러지고 말았다”(228)

“여자포로”의 긴 이야기는 마르틴이 크루스를 묻은 후에 시작된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장면이 마르틴 피에로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마르틴이 구해주는 이름없는 여자포로가 보여주는 포로의 전통이 무슨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홀리오 마푸드Julio Mafud가 지적하듯이 시 전체에서 이것은 마르틴 피에로가 타인을 도와주는 첫 번째 순간이다.(Isaacson 363) 또한 이 주인공이 원주민들 사이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도피처에서 도망쳐서 문명의 세계로 되돌아오고, 크루스의 죽음으로 인한 무관심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런 주인공의 변신에 이 이야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순교”와 “수많은 잔인함/ 기독교인이 상상도 못할 / 범죄와 잔혹한 행위”(230)를 수동적으로 목격해왔던 마르틴은 여자포로의 곤경에 처한 모습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녀와 마르틴은 그녀의 아들이 회생으로 구원받는다.

여자포로는 2년 간 원주민에게 잡혀 있었고, 그녀의 아이는 아마

도 원주민과의 결혼에 의한 결과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상징적 의미는 여자포르의 성 관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들은 성경의 어조로 회생된 순진한 어린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이 근처에서/ 그녀를 일하게 했고/ 아이는 추위에 몸을 떨며 소리를 질러댔다/ 어린양과 마찬가지로/ 어느 이른 아침에 아이는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231) 이런 회생의식이 벌어지자, 백인 여자포르를 체포한 원주민은 “그녀의 고통이 극에 달하도록/ 어리고 순진한 아이를/ 그녀의 발 밑에서 목을 잘랐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끔찍한/ 이런 소름끼치는 짓을 하지는 않는다/ “저 야만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녀는 나에게 호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창자를 꺼내/ 내 손을 묶었어요”(233)

마르틴 피에로는 “피범벅이 되어있고” “눈물로 축축이 젖은”(234) 가련한 여자포르를 보자, 그녀를 구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그는 이런 충동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후 원주민의 추적을 받으며 그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전투 동안에 마리아처럼 여자פור로는 마르틴을 도우면서 “남성적인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유골에 의해 마르틴과 여자פור로는 생명을 구한다. “원주민을 발을 내딛었고, 이내 미끄러졌다/ 어린아이의 몸 안에서/ 이런 신비를 설명하기에는/ 내 지식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알기로는 성스러운 하느님께서/ 그에게 발을 내린 것 같다/ 인과관계가 없는 곳에는/ 항상 하느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239)

전투가 끝나고 원주민이 죽자, 마르틴과 여자פור로는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녀는 자기 옷으로 아이의 뼈를/ 조심스레 들들 말았고/ 나는 그 뼈를 줌는 것을 도와주었다”(241) 두 사람은 “거대한 푸른 들판 속의/ 하늘과 지평선”(245)인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러나 마침내 대농장 estancia에 도착한다. 그러자 마르틴은 그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다.

이 여자פור로의 이야기는 “잔인한 이교도의 손에서 구해야만 할 여

자포로가 있을 때” 취했던 편력기사의 공훈을 재구성한 것처럼 보인다. 마르틴 피에로는 자기가 이슬람의 전사와 싸우는 스페인의 기사처럼, 여자포로의 곤경을 보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점은 에르난데스가 포로의 전통과 기독교-이교도의 대립관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이미지는 성에 굶주린 가우초와 힘없는 여자포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에르난데스는 성관계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을 ‘조심성’의 결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마르틴 피에로는 그녀가 다른 종족과 짝을 지었다는 이유로 여자포로를 거부하지도 않으며, 불행한 여자의 창자 속에 더러운 종족의 정액이 있다는 이유로 본능적인 편견을 갖지도 않는다. 이런 동기는 미국의 포로 전통과는 사뭇 다르다. (가령 『모히칸 족의 최후』에서 코라는 그녀가 매력적인 존재이며, 인디언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한다.) 코라가 이종족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그녀를 사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에르난데스의 여자포로는 그녀의 아들의 희생에 의해 구원된다. 홀리오 마푸드가 지적하듯이 “여자포로는 어머니이지 여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르틴 피에로가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고 사랑을 하지도”(Isaacson 365)도 않는다. 사실 여기서 여자포로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슬픔에 잠긴 어머니이다. 따라서 마르틴 피에로가 그녀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이다. 『귀환 *Vuelta*』에 잘 드러난 이교도들에 체포되어 고통받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아르헨티나의 원주민 파괴 전쟁에 크게 기여한다.

## VII. 여자포로와 보르헤스

그러나 여자포로의 주제는 원주민 파괴를 벗어나 최근의 아르헨티

나의 작품에도 사용된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보르헤스의 「전사와 여자포로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여기서 여자포로는 원주민들에 오랫동안 잡혀있던 영국여인이었으며, 추장의 부인이며, 두 아이의 아내였다. 보르헤스는 자기의 영국인 할머니가 1872년경에 국경지대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에게 문명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러자 “영국 여인은 자신은 행복하다고 대답했으며, 그날 밤 사막으로 되돌아갔다”(559) 그러면서 보르헤스는 이 여자포로를 “이 혹독한 대륙에 붙들려 변신하게 되는”(559)이라고 묘사한다. 그녀의 행위에 관해 보르헤스는 깊이 생각하는 장면은 아르헨티나 여자포로의 전통관을 구체화시키면서 종교간의 싸움으로 확장된다. 보르헤스는 이렇게 서술한다. “우리 할머니는 사냥을 나갔다. 습지 근처의 어느 농장에서 한 남자가 양의 목을 따고 있었다. 말을 탄 원주민 여자(여자포로)가 마치 꿈에서처럼 할머니를 스쳐지나갔다. 그녀는 말에서 내리더니 양의 뜨거운 피를 마셨다. 나는 그녀가 그런 삶의 방식에 젖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에 대한 도전의 상징적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559) 에체베리아 작품속의 야만인들은 말의 피를 마신다. 그러나 보르헤스의 여자포로는 성찬식처럼 무릎을 꿇고 양의 피를 마신다. 이렇듯 여자포로의 전통은 아르헨티나 전통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르헤스와 같은 현대 작가들도 이용하는 주제가 된다. 또한 보르헤스도 여자포로를 아르헨티나 전통적인 ‘슬픔에 잠긴 어머니’라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영토확장과 원주민 파괴전쟁에서 일어난 여자포로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자포로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라는 신앙적 메시지와 혼합되면서, 가톨릭과 이교도, 문명인과 야만인의 싸움으로 그려진다. 또한

이것은 가톨릭 사회 내에서 반유대적 전통을 강화시킴으로써, 가톨릭인들이 원주민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고귀하지 않고 비낭만적인 야만인들에게 사로잡힌 백인 여자 포로의 모습은 국민문학 전통과 반(反)원주민 감정의 창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여자 포로의 중요성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작가들이 원주민 세계의 파괴를 준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원주민 파괴라는 점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의 문학과 사고방식과 인종 문제에 관해서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라틴아메리카 사회 내에서 원주민들을 소외된 집단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흔히들 역사는 승리자들에 의해서, 문학은 패배자들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한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사에서 본고에서 다룬 두 편의 작품처럼 국민문학의 이름으로 수용되는 대부분의 문학은 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역사의 패배자를 인정하지 않는 위정자들의 '공식 역사'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떠나 진정으로 문학 작품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런 문학사의 허구성을 찾을 수 있다. 문학 연구가 단지 문학사적인 관점이 아닌, 문학 텍스트의 연구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orges, Jorge Luis, *Obras completas*, Buenos Aires: Emecé, 1974.
- Cordero, Héctor Adolfo, *Valoración de Martín Fierro*, Buenos Aires: Claridad, 1971.
- Díaz de Guzmán, Ruy, *La Argentina* (Ed.) Enrique de Gandía, Buenos Aires: Librería Huemul, 1974.
- Echeverría, Esteban, *La cautiva*, Madrid: Cátedra, 1990.
- Harberly, David, "Captives and Infidels", *The American Hispanist*, Oct. 1978, pp. 7-16.
- Hernández, José, *Martín Fierro*, Madrid: Cátedra, 1990.
- Isaacson, José, *Martín Fierro: Centenario*, Buenos Aires: Ministerio de Cultura y Educacion, 1972.